

## 폴리에스터 장섬유 반덤핑 재심사

무역위원회는 8월24일 제293차 회의를 개최해 의류·산업용 소재로 사용되는 타이완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(Polyester)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 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했다.

TK케미칼, 성안합섬은 2012년 1월20일까지 부과하는 타이완 및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대한 3-6%의 덤핑방지관세 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7월19일 재심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.

무역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TK케미칼과 성안합섬이 <요청자격>이 있고, 덤핑방지관세가 종료됐을 때 덤핑 및 피해의 재발 가능성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했다.

기획재정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조사단을 구성해 국내 이해관계인, 타이완 및 중국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11/08/26>